

저축은행 예금금리 연 4.5% '마지노선' 돌파

시중은행 예금금리 인상에 맞붙 전국 79곳 정기예금 평균 4.16% DH저축銀, 6개월 단기 4.6% 책정 지방·중소형은행 5%대 기대감도



시중은행이 4%대 정기예금을 출시하자 저축은행권이 고집하던 금리 상단인 연 4.5%가 깨졌다. /뉴시스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높이자 저축은행도 맞붙을 놓고 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한 것. 하반기 유지하던 예금 금리 상단이 깨지면서 고금리 정기예금 릴레이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 금리는 연 4.16%다. 지난 7월초(3.97%)와 비교하면 0.1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6개월짜리 단기예금의 금리는 0.46%p 올랐다.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권과 고금리 경쟁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달 은행권이 연 4%대 정기예금을 잇따라 출시했다. 현재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4.1%의 이자를 제공한다. 이어 DGB대우은행의 'DGB함께예금(연

4.05%)',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4.02)' 등이 뒤를 잇는다.

은행권이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미(美)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 미 연준의 '매과(통화긴축 선호)' 기조에 국내 채권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지난 7월 은행채(AAA, 3년물) 금리는 연 4.31%다. 지난 7월(연 4.33%)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에 맞서 고금리 예금을 출시했다. 그간 '금리다이아트'를 위해 업계가 유지하던 금리 상단인 연 4.5%를 돌파했다. 이달 DH저축은

행은 정기예금에 금리 연 4.55%를 적용했다. 6개월짜리 단기예금에는 연 4.6%를 책정했다. 이어 스마트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4.51%다.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는 은퇴자 및 '금리 노마드족'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권 셈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이 3분기 내 고금리 예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연 6%대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 10만명 미만의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과 대형저축은행과의 조달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현재 연 4.5%의 예금금리 상단을 돌파한 저축은행은 가입자 10만명 미만의 중소형저축은행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은 디지털 전환, 마케팅 강화 등을 진행할 여력이 대형사 대비 떨어지는 만큼 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조달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연 4.6%대 정기예금을 발견하면 곧바로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올해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 4.5%를 초과하는 정기예금은 2~3영업일 이내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중소형저축은행이 연 5%대 정기예금이라는 '초강수(超強手)'를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금금리 1%p 이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에 은행권과 저축은행의 금리 상단을 적용하면 1년 뒤 지급받는 이자 금액의 차이는 21만원에 그친다. 한 달에 1만 7000원 수준이다.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금리 노마드족을 잡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 달 이자 차이가 2만원 수준이라면 중소형저축은행보다는 은행권 예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트레블월렛 15만원 혜택 출시 이벤트 이미지. /우리카드

우리카드 트레블월렛 이용자 캐시백·추가적립 행사

우리카드가 트레블월렛 이용자를 위해 캐시백 및 추가적립을 지원한다.

◆ 6개월 무실적 고객 5만원 캐시백
우리카드는 '트레블월렛 우리카드' 출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가맹점에서 트레블월렛으로 20만원 이상 이용하면 5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캐시백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간 우리카드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행사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국내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10만 포인트까지 적립한다. 기본 적립 서비스인 1%에 더해 최대 3%를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혜택 싱가포르항공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싱가포르항공과의 전략적 제휴사업을 진행했다.

◆ 연 1만5000마일리지 별도 제공
신한카드는 싱가포르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크리스플라이어(KrisFlyer) 멤버십 혜택을 담은 '싱가포르항공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한다. 해외·면세점·골프장·싱가포르항공 등 추가 적립처에서는 1500원당 최대 3.5마일리지 제공한다. '부스터마일즈' 서비스를 이용하면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간 1만5000마일리지를 준다. 1000만원 이상 이용 시 5000마일리지 쿠폰을 지급한다. 2000만원 이상 사용하면 2000마일리지를 추가로 쌓을 수 있다.

비씨카드 네이버·유니온페이와 해외 QR 결제망 확대

비씨카드가 협업을 통해 QR코드 결제망 확대에 나섰다.

◆ EMV 규격 기반 1회성 결제정보 활용, 보안성 강화

비씨카드는네이버페이,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과 함께 '네이버페이 해외 QR 현장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중국 등을 시작으로 유니온페이 QR결제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포인트 및 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QR 현장 결제 화면에서 '해외결제'를 설정하면 된다.

별도 환전 필요 없이 현지 화폐로 전환한다. 보유 포인트 및 충전금보다 부족한 금액은 네이버페이에 연동한 계좌를 통해 자동 충전 후 결제한다.

/김정산 기자

김소영 부위원장, 홍콩서 'K투자' 세일즈

정부·유관기관 합동 투자설명회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부·유관기관 합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ID 폐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등 일반주주 보호 정책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국제에탁결제기구와의 국제통합계좌 개통 준비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주요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홍콩 금융관리국 아서위엔(Arthur Yuen) 부청장을 만나 양국이 금융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상당수 홍콩에 진출해 있지만, 여전히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며 "한국의 유능한 금융인력들도 홍콩 금융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길 희망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현재 국내 금융사들 가운데서는 은행 11곳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15곳이 홍콩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서위엔 부청장은 "최근 홍콩은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관련 솔루션 제공 기업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IT 기술이 발달한 한국의 핀테크 관련 기업과 인재들이 홍콩에 진출한다면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금감원, 다크웹 보안위협 대응 머리 맞댄다

21일 '테크 파인더 쇼케이스' 행사 우수 기술 핀테크사, 금융권 소개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금융권에 소개하는 '테크 파인더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다크웹발 보안위협이 현실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응 필요성이 늘었다"며 "금융사에게 다크웹 위협 대응을 위한 신기술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에게는 금융권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은 쇼케이스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홍보보스를 제작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다크웹 위협 대응 체계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다크웹 위협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를 활용한 다크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쇼케이스는 다크웹 모니터링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핀테크 기업에 한해 참가 신청서를 받고, 5개사 내외로 참석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2만명 초청 사회공헌 콘서트

16~17일 '우리 모모콘' 개최 이석훈·다비치·폴킴 등 출연

우리금융그룹이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2만명을 초청해서 을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우리 모모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모모콘'은 참가자가 콘서트 관람과 함께 우리동네 선한가게, 생명의 숲, 비인기종목스포츠 후원, 우리니어로 등 우리금융이 마련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홍보와 체험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참여가 기부로 이어지는 사회공

헌 축제 한마당이다.

이번 콘서트는 우리금융 고객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자(어린이·청소년·대학생), 우리니어로(소방관·경찰관·군인) 등 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사회복지사 등 NGO단체 임직원 약 8000명을 특별 초청한다.

출연 아티스트 라인업은 16일에 이석훈, 다비치, 국카스텐, 스테이씨, 비 등이 출연하고, 17일에는 이무진, 폴킴, 우즈(WOODZ), 에일리, 자이언티의 출연에 이어 우리금융그룹 브랜드 앰버서더로 아이유도 참석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하나금융, 해외 현지직원 대상 기업문화 워크숍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하나금융

하나금융, 해외 직원들에 원팀 DNA 전파

하반기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

하나금융그룹이 지난주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글로벌 원팀(One Team) DNA 전파를 위한 '2023 하반기 하나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그룹의 미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활동 등을 함께 공유하

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하나금융은 행사에 참석한 20개국 30명의 해외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그룹의 글로벌 현황 및 전략, 기업문화, ESG 경영활동 등을 소개했다.

또 그룹의 주요 관계사 CEO와의 만남, 본사 방문 투어 등 그룹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소속감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나우리 기자